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4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8일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호남예술제

예술꿈나무 잔치 호남예술제 개막

전국 최대 규모의 예술꿈나무 잔치인 제67회 호남예술제가 27일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발레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호남예술제는 다음달 31일까지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 부문 등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해 기량을 펼친다. 발레(클래식) 군무에 참가한 광주지역 초중 연합팀의 경연 모습. ▶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장·전남지사 대진표 확정 여야 후보들 본격 표밭갈이 나서

광주시장 - '문심' 강기정·'윤심' 주기환 … '복심' 대결
전남지사 - 민주 김영록·국힘 이정현·진보 민점기 '3파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확정되면서 6·1 지방선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광주시장·전남지사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각 정당 후보들은 본격적인 표밭 갈이에 나섰다.

◇광주시장 선거=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누르고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기정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주기환 후보, 정의당 장연주 후보, 기본소득당 문연철 후보, 진보당 김주업 후보, 무소속 정광선 후보 등 6명이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번에 치러질 광주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는 강기정 민주당 후보와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결이다. 이는 신·구 정권의 복심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 후보는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문심'으로, 주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윤심'으로 꼽히는 만큼 두 후보 간 대결이 관심사다. 또한,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강 후보가 얼마나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와 주 후보가 지난 대선 때처럼 불모지인 광주에서 의미있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반면, 두 후보 간 정책 대결도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27일 강 후보에게 정책선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발전을 위해 강 후보님과 정책 승부를 펼칠 준비가 돼 있다"며 "네거티브 없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 측도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힘 주 후보와 좋은 정책 있으면 서로 협력하면서 예산 확보 등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전남대 삼민투위원장(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을 지내며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86세대'의 대표 주자로 17·18·19대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주 후보는 대검 수사관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다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을 당시 인연을 맺은 뒤 윤 당선인이 지휘하는 주요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해온데다 이번 시장 출마에도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의당 장연주 후보와 기본소득당 문연철 후보, 진보당 김주업 후보 등은 광주시정의 '일당 독점 구도 타파'를 외치며, 민주당 견제론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더불어민주당 경선 없이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5일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민점기 진보당 후보 등과 3파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취임한 김 지사는 임기 내내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줄곧 1~2위 자리를 지켜왔다. 임기 중 해묵은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전남 변화를 이끌고 있는 데다, 특유의 친화력까지 겸비해 도민 호감도가 높은 게 장점이다.

완도 출신인 김 지사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관선 강진군수·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18·19대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을 지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는 등 행정·정치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로 공천된 이정현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다. 보수정당 최초로 호남에서 재선을 한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새누리당 대표 등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나홀로 선거'를 통해 불모지였던 순천 선거구에서 재선을 이룰 정도로 유권자들과의 소통이 강점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후보의 득표율이 관심사다. 민점기 진보당 예비후보도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역 불균형 해소 실천 방안 시급"

김병준, 균형발전 비전 발표
3대 약속 76개 실천 과제 포함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과 지역 간 격차 전반을 시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3대 약속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76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시도별 공약을 과제화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및 광주~대구간 달빛 고속도로 건설, 광주 군 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립, 5·18 국제 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트 구축, 광역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 바이오 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에는 그동안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가와 지자체 간 기능 재조정, 지자체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자주재원 확충,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분권혁신특구 조성, 주민투표제도 개선,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과제의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각 지역별 인구, 기업 수, 기반시설, 경제 여건, 소득 수준 등을 분석, 5년 뒤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